균형인사 시작…총리·비서실장 다음 호남출신 누구?

'대탕평' 호남 중용 첫 인사

전문성·젊은 청와대 기조
50대 실장, 비서진 젊어질 듯
민정수석 조국 교수
인사수석 조현옥 거론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첫 인사 기조는 '호남인사 중용'과 '전문성 중시', '젊은 청와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낙연(65) 전남지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는 서훈(63) 전 국정원3차장을 각각 지명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종석(51) 전 의원, 대통령 경호실장에 주영훈(61)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민정수석에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수석에 조현옥(61) 이화여대 초빙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총리 후보자와 임 실장은 호남, 서 국정원장 후보자는 서울, 주 실장은 충남 출신이다. 조국 교수는 부산, 조현옥 교수는 서울 출신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자신이 영남 출신임을 감안한 지역 안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에 호남 출신을 선택함으로써 '호남을 중용하는 대탕평인사'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자신도 이날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 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인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선거기간에 새 정부 첫 총리를 대탕평·통합형·화합형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이 지사님이 그 취지에 맞게 새 정부 통합과 화합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온화하고 합리적으로 처신하신 분인 만큼 협치행정, 탕평인사의 신호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이날 향후 인사에서도 호남 인재 발탁에 신경 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으로 진행될 청와대 비서진과 정부 부처 장·차관 인선에서도 호남 인사 중용이 기대되는 이유다. 10여년 동안 극도의 인사 소외를 경험한 호남 인사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당기는 첫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임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 "청와대를 젊고 역동적이고 탈권위, 그리고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로 변화시킬 생각"이라며 "임 실장은 젊지만 국회와 당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고 서울시에서 쌓은 행정 경험을 통해 안정감과 균형감을 두루 겸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참모가 격의 없이 대화하는 청와대, 참모들끼리 토론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청와대 문화로 바뀌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임 비서실장이 50세를 갓 넘었다는 점에서 향후 임명되는 청와대 비서진은 지난 정부에 비해 훨씬 젊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와 주영훈 경호실장 인선은 '전문성'에 방점이 찍힌 인사라는 평이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 3차장, NSC정보관리실장, 남북총리회담 대표 등을 맡는 등 대북·안보전문가로 꼽힌다. 문 대통령도 "서 후보자는 평생을 국정원에 몸담은 남북관계 전문가로 두 번의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실무협상을 하는 등 북한 업무에 가장 정통한 분"이라며 "무엇보다 국정원 출신 인사 중 국정원 개혁 의지가 누구보다 분명해 제가 공약했던 국정원 개혁 목표를 구현할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 경호실장도 1984년 경호관에 임용된 후 보안과장·인사과장·경호부장 등을 지낸 경호전문가다. 문 대통령은 "주 경호실장은 평생 경호실에서 보낸 공채 출신 경호전문가로 친근하고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목표로 경호실이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문 대통령 오른쪽부터)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지명과 임종석 비서실장 임명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임 총리·비서실장·국정원장 후보자 프로필

DJ 권유 정치 입문…언론인·4선·지사 지내

이낙연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낙연 전남지사는 합리적 성향의 호남 중진 정치인이다.

언론인·중진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 도백으로 도정을 이끌다 이번에 국무총리로 전격 발탁됐다.

그는 영광의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9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로 잔뼈가 굵었으며 도쿄특파원, 논설위원, 국제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언론에서 21년간 재직했다.

정치부 기자 때 '동교동계'로 불리는 옛 민주당을 출입하면서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2000년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고향인 함평·영광에서 출마해 여의도 진출에 성공했다.

2002년 대선 직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분당 때 이른바 '꼬마 민주당'에 남았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역풍에도 불구하고 당선되는 등 19대 국회까지 내리 4선을 했다.

초선 시절인 2001~2002년 두 차례의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2002년 대선 때 선대위 대변인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등 다섯 차례에 걸쳐 '당의 입'으로 이름을 날렸다. 동경 특파원 때 쌓은 인맥을 발판으로 국회 한·일 의원연맹 수석부회장 등을 맡은 바 있다.

미술 교사 출신의 부인 김숙희씨와 1남.

▲영광(65) ▲16·17·18·19대 국회의원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새천년민주당 대표비서실장·대변인·기획조정위원장·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전대협 의장 지낸 운동권 출신 대표 정치인

임종석 비서실장

임종석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의 대표적인 486 운동권 그룹 정치인이다. 재선의원을 지냈다.

원만한 성격과 친근함으로 정치권에 여야를 가리지 않는 '마당발 인맥'을 자랑한다. 친화력과 조정 능력이 뛰어나고, 대선 과정에서는 캠프 인사 영입에도 큰 역할을 도맡아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 총학생회장이던 1989년 전대협 3기 의장을 맡아 임수경 전 의원의 '평양 축전참가'를 진두지휘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당시 국가보안법을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3년6개월 옥살이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비서실장 역할이라는 중책을 수행했다. 부인 김소희(50)씨와 1녀.

▲장흥(51) ▲서울 용문고-한양대 ▲전대협 3기 의장 ▲16, 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대변인 ▲서울시 정무부시장 ▲더불어민주당 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비서실장

이낙연 총리 후보자 "내각 제청권 행사 시간적으로 무리"

전남도청·영광 고향마을 등 지역각계 환영 분위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자주 만나고 자주 교감하는 관계는 아니었다"면서도 "상당한 정도의 신뢰감을 갖고 상대를 대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문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후보로 공식 지명된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올초 문 대통령이 광주에 왔을 때 1시간 조금 못 되게 뵌 적이 있는데 '호남을 국정 동반자로 생각한다. 이 지사를 국정의 동반자로 모시고 싶다'는 말씀을 했다"며 "그때 그 말을 확인하지는 않고 '도와드릴 일이 있느냐'고 물으며 화제를 돌린 적이 있었는데 열흘 전 임종석 비서실장이 오늘 같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전달을 받은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권 행사 문제와 관련, "첫 내각의 경우 제가 정식 총리가 된 뒤에 제청해서는 내각의 구성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며 "(문 대통령과) 현 총리 간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제청권을 모두 행사하길 기다리는 것은 무리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인사의 제청은 각료에 한해서만 총리가 갖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으며, 헌법에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이 지사의 청문회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취임 이후 도정 전반에 대해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이 지사는 이명박 정부의 장성 출신 김황식 제41대 총리(2010~2013)에 이어 4년 만에 호남 출신 총리가 될 전망이다. 전남에서 4선 국회의원과 지사를 거친 만큼 과거 와는 차원이 다른 명실상부한 '호남 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전남도청 내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남도 한 고위공직자는 "온건하고 균형감각이 있어 총리로 적격이었다"며 "지역민은 물론 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역민들도 문 대통령의 이 지사 발탁을 반기고 있다. 한편 이 지사 고향인 영광군 법성면 발막마을 등 지역주민들은 축제 분위기에서 총리 지명을 반기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광=이종윤기자 jylee@

국정원 3차장 시절 두차례 남북정상회담 주도

서훈 국정원장

10일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은 2000년 6·15정상회담과 2007년 10·4정상회담 등 남북 간 열린 두 차례 정상회담을 모두 막후에서 주도한 베테랑 대북 전문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과 다수의 공식·비공식 접촉을 진행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가장 많이 대면한 인물로도 꼽힌다. 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 당시 북한 금호사무소 현장사무소장으로 1997년부터 2년간 북한에 상주했다. 이때 다양한 북측 관료들을 만나 그들의 협상 스타일을 익힌 것이 향후 북한과 협상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됐다는 후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0·4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의 비공개 방북 때도 동행했다. 가족은 부인 오해정(59) 여사와 1녀.

▲서울(63) ▲서울고, 서울대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 입사 ▲1997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표 ▲2006년 국가정보원 3차장 ▲2017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

광주일보 65 since 1952 광주일보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불받아요!

빈용기보증금 상담전화 1522-0082
www.kora.or.kr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품목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2017. 1. 1. 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비고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190㎖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미니어처 등
	190㎖ 이상 400㎖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 이상 1,000㎖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중대형) 등
	1,000㎖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정종 등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보해양조